

공모지원 선정 이유 및 사유서

<오페라 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오페라 창작산실 지원사업은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국내 창작 오페라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시범공연 지원에 선정된 작품은 실연 심사의 기회를 얻게 되고 실연심사에서 최종 선정 될 경우, 우수공연 제작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심의에는 총 7건이 신청되었고, ①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②공연작품의 예술성(40%), ③공연단체의 역량(30%)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총 4건을 선정하였다. 대본과 음악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심의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인 심의를 진행하였다.

지원신청 작품의 전반적인 경향은 고전문학, 고대사 등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소재를 구했다는 점이다. 음악어법 면에서는 현대 양악에 국악적 요소를 접목시킨 방식이 우세했다. 예년에 비해 작품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반면, 오페라의 음악적 측면과 극의 구성, 장면의 극적 효과 등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었다. 이에 작품의 예술적 발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사업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무대화 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4개의 작품들은 시범공연 준비 기간 동안 대본과 음악의 완성도, 관객과의 소통의 문제 등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일부 있다. 선정된 작품들은 한국의 미학과 전통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번 시범공연을 통해 작품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4 오페라 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심의위원 일동